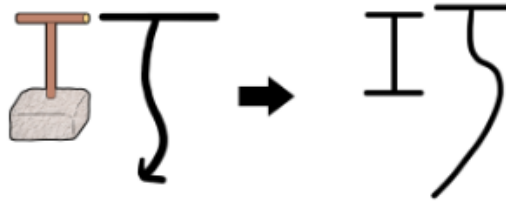


3(2)
-
51

회의문자①



巧

공교할 교

巧자는 '공교하다'나 '숨씨가 있다.', '교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巧자는 工(장인 공)자와 丂(공교할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공교하다'라는 뜻은 丂자가 먼저 쓰였었다. 丂자는 사물의 휘어짐을 표현한 것으로 '책략'이나 '재주'를 뜻하기 위해 만든 모양자이다. 巧자는 여기에 '장인'을 뜻하는 工자를 더해 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남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 丂자는 옛 글자이고 巧자는 후에 뜻을 명확하게 하도록 工자를 더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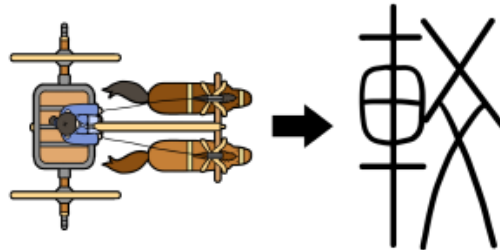
소전

巧

해서

3(2)
-
52

회의문자①



較

견줄/비교할 교

較자는 '견주다'나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較자는 車(수레 차)자와 交(사귄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交(교 교)자가 들어간 較(비교할 교)자가 쓰였었다. 較자에 쓰인 交자는 마차에 쓰이는 '가름대'를 뜻하기 위한 모양자이다. 가름대란 말과 마차를 연결하기 위해 끈을 통과시켰던 나무를 말한다. 가름대는 양쪽에 줄을 이어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較자는 이것을 좌우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견주다'나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較자로 바뀌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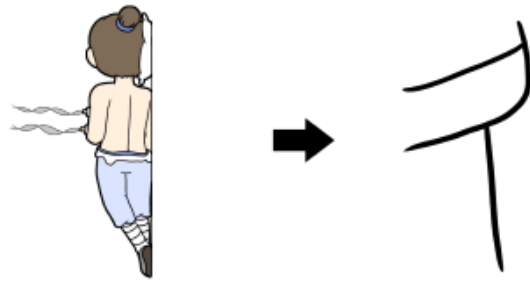
소전

較

해서

3(2)
-
53

지사문자①



久

오래 구:

久자는 '오래다'나 '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久자는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등과 똥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久자는 본래 '똥질'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똥은 약물을 몸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김을 쏘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똥을 놓은 이후에는 약효가 스며들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久자는 후에 '오래다'나 '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火(불 화)자를 더한 灸(똥 구)자가 '똥질'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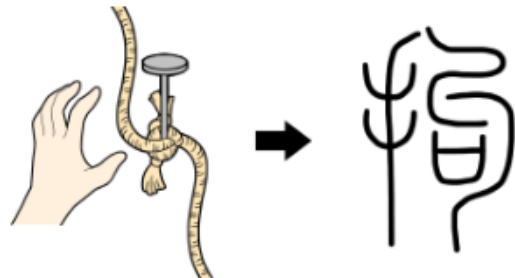
소전

久

해서

3(2)
-
54

회의문자①



拘

잡을 구:

拘자는 '잡다'나 '체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拘자는 手(손 수)자와 句(글귀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句자는 본래는 丿(엷힐 구)자에 口(입 구)자를 결합한 것으로 말뚝을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拘자는 이렇게 끈으로 말뚝을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句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율가미로 손을 묶었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래서 拘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었다는 의미에서 '잡다'나 '체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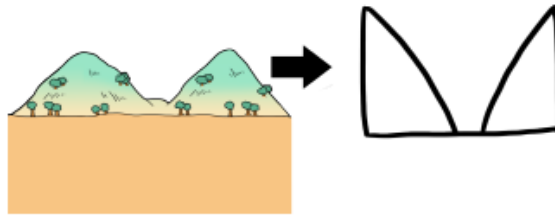
소전

拘

해서

상형문자 ①

3(2)
-
55



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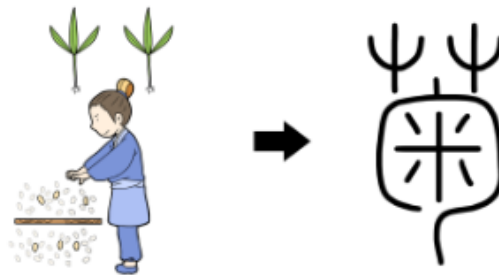
언덕 구

丘자는 '언덕'이나 '구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丘자는 작은 산을 그린 것이다. 丘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 개의 산등성이가 𡵓 그려져 있었다. 산을 뜻하는 山(되 산)자가 세 개의 산등성을 𡵓 그린 것이라면 丘자는 두 개만 그려 작은 산을 표현했다. 그래서 丘자는 '언덕'이나 '구릉'과 같이 산보다는 낮고 완만한 곳을 뜻하게 되었다. 丘자가 완만한 언덕이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 '무덤'이나 '분묘'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3(2)
-
56



菊

국화 국

菊자는 '국화'를 뜻하는 글자이다. 菊자는 艹(풀 초)자와 匊(움켜 틀 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匊자는 허리를 굽혀 버 이삭을 줍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국화는 자태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관상용으로 널리 사랑받아왔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로 지정하여 국화주를 들고 산으로 가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다. 예로부터 국화는 매화나 난초,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귀한 대접을 받아왔기도 했는데, 국화가 군자 가운데서도 '은둔하는 선비'의 이미지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菊자는 바로 이러한 국화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소전	해서

3(2)
-
57

상형문자①



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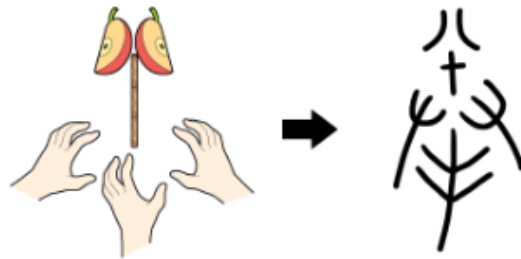
활 궁

弓자는 '활'이나 '활 모양'을 뜻하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弓자의 보면 구부러진 활과 활시위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심지어 활 위로는 장식까지 표현되어있다. 이렇게 활을 그린 弓자는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화살을 쏘기 위해서는 활의 시위를 당겨야 한다. 그래서 弓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당기다'나 '베절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글자에서는 활과는 관계없이 단지 모양자만을 빌려 쓴 예도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58

회의문자①



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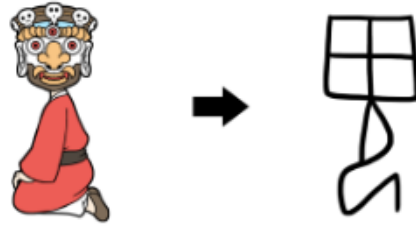
주먹 권:

拳자는 '주먹'이나 '오그려 쥔 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拳자는 3개의 手(손 수)자가 결합한 것이다. 금문에 나온 拳자를 보면 3개의 手자 위로 八(여덟 팔)자와 十(열 십)자가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八자와 十자 대신 동물의 발자국의 뜻하는 采(분별할 변)자가 그려져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拳자에 '주먹질'이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拳자는 마치 무언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손을 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금문	소전	해서

3(2)
-
59

상형문자①



鬼

귀신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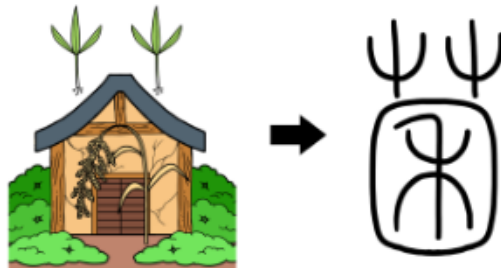
鬼자는 '귀신'이나 '혼백(魂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혼백'이란 혼(魂)과 백(魄)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혼을 양(陽), 백을 음(陰)으로 보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즉, 혼백은 사람이 사는 동안 몸에 머물러 있던 기(氣)의 개념이다. 鬼자는 그러한 기를 뜻하는 글자로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鬼자는 귀신을 그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鬼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田(밭 전)자가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鬼자는 이러한 모습이 변형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60

회의문자①



菌

버섯 균

菌자는 '균'이나 '버섯', '세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菌자는 艹(풀 초)자와 園(곳집 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園자는 수확한 버섯을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것으로 '곳집'이라는 뜻이 있다. 菌자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곰팡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곳집'을 뜻하는 園자는 곰팡이가 잘 자라던 습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 艹자는 그곳에서 자라던 '버섯'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	해서